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지난달, 모교에서 고위정책 과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KTX와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여유 있게 움직이다 보니 예상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강의 장소에 도착했다.

여유 시간에 옛 추억이 어려있는 모교의 복도를 천천히 걷다 보니 장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학생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복도 한쪽에는 옛 스승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몽클해졌다. 1970년대 초,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토계획과 환경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새 시대를 열었던 학자들이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80.6세, 86.4세이다. 인생 2라운드를 사는 필자도 새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곰곰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 있는 천문시계 ‘사도들

종소리에서 깨우친 삶의 우선순위

의 행진’을 본 적이 있다. 매시 정각이면 성 비투스 대성당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 인형들이 나오는데 관광객들은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그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4개의 조각상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조각상이 줄을 올리는 줄을 당기면 그 옆에 있는 ‘탐욕’, ‘허영’, ‘쾌락’을 상징하는 세 조각상이 나와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다. 죽음을 경고하는 종소리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이 필자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어쩌면 우리도 시계탑에 있는 네 개의 조각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건강,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행동 등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종소리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라’는 충고의 말처럼 필자의 가슴을 두드렸다.

일단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며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을 건강한 생각으로 시작하고 작은 일이라도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하고 난 후 휴식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잘 보냈어’하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고 싶다.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아내, 가족,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할 시간

이 왔다. ‘내가 좋으면 그들도 좋은 것’이라는 일방적 행동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이다.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무의미한 교제 등 욕망으로 끌어안고 있던 집들을 하나하나 털어내야겠다. 정작 필요하지 않지만 언젠가 쓰겠지 하고 쟁여놓았던 물건,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했던 관계, 나의 경력된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고민들. 훌훌 버려야 진정한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남은 하루는 의미 없게 낭비하는 1년보다 훨씬 귀하다.’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가 필자에게 해주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 삶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매일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오랜만에 방문한 모교에서의 기억은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한자리에서 마주한 듯한 시간이었고 그 속에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프라하 천문시계 조각상처럼 내게 들리는 종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일상을 돌아쳐보며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매일의 일상을 보내면서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그 시간.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고자 한다.

종교칼럼

우리의 회복력은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나 욕심의 충동을 통해 시작되었고 특히 기독교인의 욕심은 자체력을 잃어 탐욕으로 돌변해 버렸다. 모두를 힘들게 했고 모두를 주저앉게 했으며 희망까지도 짓밟힐 뻔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단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회복 원동력은 무엇일까? 계엄, 내란, 경기침체, 기독교인의 횡포 등은 우리 희망을 꺾지 못했다. 우리 광주는 1980년 5월 군사독재와 그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혔다. 그러나 폭력에 짓눌리는 가운데 광주 시민들은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지켜주었다. 군사독재의 불의를 가리기 위해 외적 폭력의 총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리고 죽이면서 눈과 귀와 입을 가려버렸다. 이념과 관념으로 색깔론을 만들어 서로를 갈라치기 하며 ‘빨갱이’라는 내적 폭력의 도구를 만들어 서로를 죽이도록 조장하여 분열을 일으켰

기 고

첫 문민 국방부장관에 거는 기대



이성훈
북한학 박사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6월 23일 개각으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1기 외교안보라인의 완전한 윤곽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중 1차장, 임응운 2차장, 오현주 3차장 인사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통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의 중심의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인선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인사를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중동 정세 격화, 통상 및 관세협상, 북러 밀착과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부터 “선진국 대부분이 국방 문민화를 이루었다”며 문민 국방부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지명은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부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끔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국회 내 독보적인 ‘안보통’으로 여아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사시 군 통수 체계에서 군 경험 없는 민간인 장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타당한 걱정일 수 있다. 5·16 이후 임명된 39명의 장관이 모두 장군 출신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더욱더 군 조직은 경직화 되면서 변화 요구에 둔감해지고 있었던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군 출신이 아니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문민 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직된 군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군 내부의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군 출신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 장관이야말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다. 안 후보

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방 전략 분야에 정통한 국방차관 임명과 국방부 국실급 참모 조직 보강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것이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의 국방을 이끌어갈 안 후보자는 국방위원장 시절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특별법을 발의했고 ‘내란혐의 국경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진상 규명을 이끌었다. 군을 깊이 이해하되 군의 잘못된 관행에는 단호히 맞서 싸웠은 그동안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통수권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면서 K-국방, K-안보, K-방산의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의 문민장관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진정한 첫 문민 국방부장관 안규복 후보자가 성공적인 인사문화를 거쳐 우리 국군을 강화고 전문적인 집단으로 이끄는 최초의 성공적인 문민 국방부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기대한다.

社 說

타운홀미팅에서 역량 부족 드러낸 광주·전남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은 여러가지로 의미있는 행사였다. 국내에선 드문 집단 토론 방식을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재명식 소통’ 행보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게 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지역민에 대한 사랑이자 배려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는 미흡한 준비로 역량 부족을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던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지역단체장들은 장황한 설명으로 대응해 ‘당위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의 지적을 수차례 받아야 했다. 생중계 된 130분 동안 유튜브 시청자들은 댓글로 광주시장, 전남지사 ‘너무 답답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지방정부의 미흡한 준비는 이재명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후 ‘호남의 발전 방안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가산단 조성 등 인프라 투자만 요구했다. 보다 못

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택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만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오느냐. 만약 안 오면 물리적으로 막대한 개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였다.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요구 사항을 거듭 주문했지만 주목할 만한 주문이 없자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 지 모르겠다”는 대목에선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다.

광주·전남의 타운홀 미팅은 해묵은 과제인 광주 군공항 해법을 찾았다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미흡한 준비와 역량 부족을 드러낸 자리였다는 비판을 받을만 했다. 구체성이 결여된 건의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감과 지원을 끌어낼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첫 타운홀 미팅이라 더 시도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변명은 말이 안된다.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평소 행정을 꿰고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요구는 구체적이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위성과 명분도 좋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해 정부 실무자를 설득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치적 백서로 제주항공 유가족 올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발간한 제주항공 참사 백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1주일간 행적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과정을 담은 백서를 최근 발간했는데 유가족들이 위로받기 보다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정 의원은 유가족 입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민·관·정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하지만 유가족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된 논란이다. ‘제주항공이 책임감을 보였다’며 찬사를 보내거나 자원봉사에 나선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한 칭찬 등이 그것인데 백서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사고수습 특위 위원 신분

으로 백서를 발간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당사자의 기억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왜곡된 기록이라고 반발하면서 사과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한 유가족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 밝히고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만큼 유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 그대로인데 자신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백서를 발간해 상처를 줘야 되겠다는가. 정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유가족들의 항의에 백서 파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오락가락 행보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백서 발간 의도를 밝히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無 等 鼓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오를 가운데 정권 교체에 위해 그를 적극 지지했던 호남에서의 인기는 상종가다. 지난 25일 이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일부 정치인의 ‘이재명 마케팅’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에도 호남에서 ‘누구누구 측근’이라는 이미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직함에서 지운 뒤 ‘청와대 근무’만을 표기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진보 진영의 정권 교체 이후 호남에서는 ‘대통령 마케팅’이 각종 선거에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현상이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선과 본선의 당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홍보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다.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이력보다 이대통령과의 인연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의 이름에 가려 정작 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빼면 해당 후보자에게 ‘뭉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